

관동대지진과 박열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간토 대지진(1923)과 조선인 학살

- 2009년 일본 중앙방재회의 작성 보고서에 일본 군대에 의한 조선인 살상자 수 기록. 간토 학살을 다룬 다큐 영화 '1923'(김태영 감독) 확인(2023.2.9. 한국일보 보도)
- 일본 정부는 공식 개입 부인,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
- 도쿄대 스즈키 준 교수



간토 대지진(1923)과 조선인 학살

- 1995년 한신·아와지 대지진 발생을 계기로 과거의 재해 관련 보고서 작성 3권 중 제2권 중
- 당시 계엄사령부 문서에 의하면, 조선인이 도쿄에서 27명, 지바에서 12명, 총 39명 살해되었다고 보고.
- 1923년 9월 1일 AM11:58 도쿄, 가나카와, 지바, 사이타마, 시즈오카, 야마나시, 이바라키 등 등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.9 대지진(99331명 사망, 43476명 실종, 128266채 가옥 파괴 등 피해) 9월 2일 계엄령
- 재일조선인, 중국인, 사회주의 계열 일본인 무차별 살해 사건by 자경단, 일본 경찰, 군대
-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의하면 조선인 6,661명 학살 추산. 2만 3,058명(1924년 독일 외무부 사료)이라는 주장도 있음.
-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 자체 진상 조사로 일본 군대와 자경단에 의해 자행된 학살 책임 인정, 사죄 권고-> 일본 정부 부인
- 한국 국회, 간토 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

영화 속의 박열



가네코 후미코와 박열

(독립운동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, 청아출판사)



박열과 가네코 후미코



아나키즘(무정부주의)

-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. 붉은 피로써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은 인류에 의해 더럽혀진 세계를 깨끗이 씻을 것이다.
- 그리고 나 자신도 죽어갈 것이다.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, 평등이 있고, 평화가 있다. 참으로 선량하고 아름다운 허무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
- 소설, 박열의 사랑(2009, 김별아)
- 영화, 아나키스트(2000, 유영식 감독)
- 영화, 박열(2017, 이준익 감독)
- 뮤지컬 등

가네코 후미코(1903~1926)

- 1903년 요코하마 출생->어린시절 충북 청주에서 생활. 1919년 3.1운동 목격->일본행. 1920년 일본사회주의자동맹 결성, 조선 유학생도 참여.
- 박열 등 조선인사회주의동맹 흑도회(黑道會) 결성
- 가네코,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교류. 학대받는 민중을 위해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는 사회주의의 사상에 심취.
- 1922년, <청년조선>에 실린 박열의 <개새끼>라는 시를 보고 매료되어 함께 생활(박문자).
- 1922년, 가네코와 박열, 흑도회 기관지 <흑도> 창간
- "우리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자아에 입각하여 산다, 우리는 각자의 자유로운 자아를 무시하고 개성의 완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하고 인위적인 통일에 끝까지 반대한다,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된 주의도 없다. 인간은 일정한 틀에 걸려들 때 타락하고 사멸하는 것이다" 선언

박 열(1902~1974)

- 1902년, 경북 문경 출생-> 경성고보 수학중 3.1운동 관련으로 퇴학-> 일본으로 가서 고학(신문배달과 고등학교 학업)
- 간토대지진 후 일본 경찰의 예비검속, 취조에서 폭탄 구매 계획 탄로->천황 암살 모의라고 대역죄 날조.
- 재판투쟁: 조선옷을 입고, "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므로" 재판도 조선말로, 통역 요구.
-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의 도움으로 가네코와 옥중 결혼

무정부주의 활동과 간토대지진

- 흑도회 내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분열, 해체
- 1923년, 가네코는 박열, 아나키즘 단체 불령사(不逞社) 결성
cf. 불령선인(不逞鮮人)
- 백정, 부락민, 노동자 등 하층 계급의 목소리 반영
- 요시찰 조선인으로 지정되어 일본 경찰의 감시
-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 발생, 조선인과 사회주의자에 의한 것
이라는 유언비어 확산
- 일본사회주의의 대부 오스기 사카에(大杉栄) 부부 총살, 조선인 6천
여명 학살
- 가네코와 박열 보호검송 명목으로 구류. 폭발물 단속법 위반과 천황
암살 모의 대역죄로 사형 선고

무정부주의 활동과 간토대지진

- 가네코의 천황제 부정 신념 "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며, 인간인 천황을 신격화하는 것은 사기" 주장
- 박열의 사형 선고 이후 가네코의 혼인신고
- 가네코의 옥중 수기
- 1926년 3월 25일, 박열과 가네코 사형 선고-> 박열 무기징역 감형->
- But 가네코는 1926년 7월 우쓰노미야 형무소에서 자결?(23세)
->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매장됨(by후세 다쓰지).

박열의 최후

- 1945년 10월 27일, 일본 아키다 감옥에서 22년만에 석방됨(43세)-> 도쿄에서 '신조선건설동맹' 결성. 김구의 부탁으로 윤봉길, 이봉창, 백정기 세 의사의 유해 송환
- 이후 반공주의 노선(옥중 전향?), 재일조선인거류민단 초대 단장
- 1948년 8월 15일 일시 귀국, 이듬해 영구 귀국
- 1950년 6.25 전쟁 중 납북됨. Cf. 조소앙, 김규식, 이광수 등
- 1974년 1월 17일 평양에서 사망(71세, 묘지는 평양)
-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
- 가네코 후미코와 후세다쓰지도 건국훈장(5월의 독립운동가)

박열과 재일교포(1947)/박열과 김구(1948)



박열과 재일교포 민단 간부



후세 다쓰지

- 1879년 일본 오사카 출신 변호사
- 1919 2.8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최팔용, 백관수 등 9명의 변호.
-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옹호.
- 1923년 8월, 조선 방문, '인간생활의 개조운동과 조선민족의 사명' 강연회
- 관동대지진 후 조선인 학살 진상 조사



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

-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변론
- 일본 천황제 부정, 식민 통치 비판에 대한 목숨을 건 변호
- 1932년 법정 모독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, 1933년에는 신문지법, 우편법 위반으로 금고 3개월 실형 선고
- 일제 패망 후 다시 변호사 활동. 평화헌법 보급과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투쟁 매진
- 1953년 사망, 2004년 건국훈장 추서

건국훈장을 받은 가네코 후미코



일제의 사면 거부, 1926년 7월 23일 옥중 사망.
가매장된 유해를 흑우회 동지들 수습->
후세 다쓰지 변호사가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으로 운
구, 팔령산에 매장. 건국훈장 추서(2018)
경북 문경 박열기념관